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한국 사회의 정서적 양극화: 강경지지자와 내적 효 능감 효과

정연경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IFS 워킹페이퍼 2026-01 (Vol.5)

한국 사회의 정서적 양극화

정연경^a
2026. 7

a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 (goodjob3@snu.ac.kr)

인용 정보

정연경 (2026). 「한국 사회의 정서적 양극화: 강경지지자와 내적 정치효능감 효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 (IFS 워킹페이퍼 No.2026-01, Vol. 5).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목차

초록	04
Abstract	05
1. 서론	06
2.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효능감	10
2.1. 정서적 양극화	10
2.2. 매개 경로: 내적 정치효능감	11
3. 데이터 및 방법론	13
3.1. 데이터	13
3.2. 변수	13
3.3. 방법론	15
4. 분석 결과	16
4.1. 강경 정당지지자	16
4.2. 분석 결과	17
5. 결론 및 함의	22
참고문헌	24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이념이나 정책 선호의 차이보다 정서적 양극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당 지지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과 내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당 지지 강도는 내적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내적 정치효능감은 다시 정서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025년 12월 실시한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당 지지 강도는 정서적 양극화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념 성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적 정치효능감은 정당 지지 강도와 정서적 양극화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이념의 양극화라기보다 당파적 애착의 양극화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정서적 양극화, 정당 지지 강도, 당파성, 내적 정치효능감, 한국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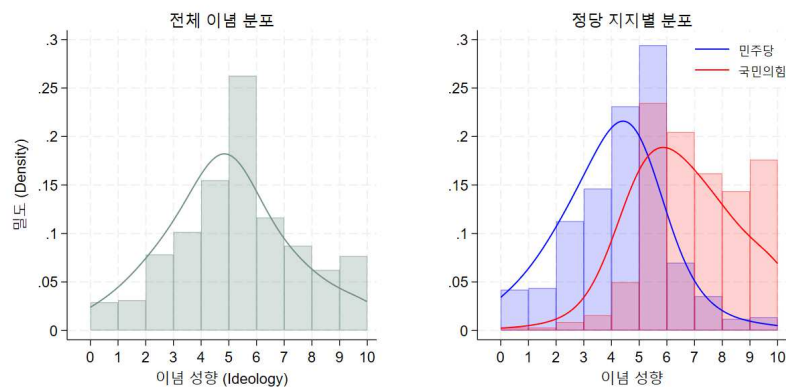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artisan strength on affective polariza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Using data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nalysis shows that partisan strength is the strongest predictor of affective polarization, whereas the effects of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opulist attitudes are limited. In addition, internal political efficac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 strength and affective polariz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tical polarization in South Korea is driven more by partisan attachment than by ideological polarization and that internal political efficacy, while serving as a democratic resource that encourages political participation, may also function as a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intensifies political division.

Keywords: Affective polarization, Partisan strength, Partisanship, Internal Political Efficacy, Korean politics

1. 서론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025년 12월 한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¹⁾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진술에 대해 응답자의 약 80%가 이에 매우 동의(39.5%)하거나 대체로 동의(41.4%)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거치며 정치적 분열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체감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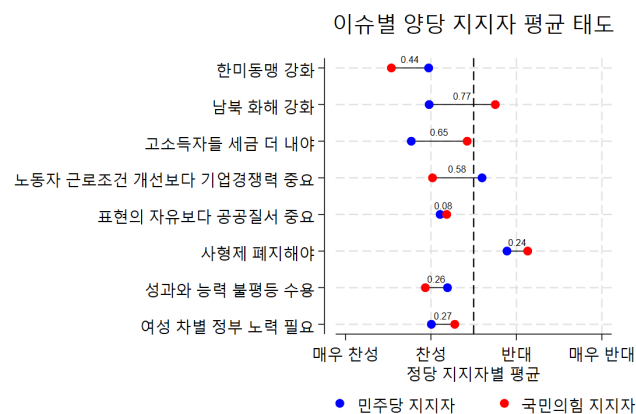


[그림1] 한국 유권자의 주관적 이념 성향 분포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실제로 무엇을 두고 갈라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간 이념적 입장이나 정책 선호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만큼 극단적이지 않다. 먼저, 이념과 관련하여 [그림1]은 전체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 성향 분포(왼쪽)와 더불어민주당(이

1)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온라인 조사로, 조사 기간은 2025년12월29~31일이며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3,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서±1.8%p이다.

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주관적 이념 성향 분포(오른쪽)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 성향은 0점(매우 진보)에서 10점(매우 보수)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 이념 성향은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어 양 극단으로 치우쳤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양당 지지자별 주관적 이념 성향 분포를 살펴보면, 비록 국민의힘 지지자의 보수 극단성이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중도를 중심으로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어 두 집단 간 이념이 양극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2] 정책 이슈별 양당 지지자 평균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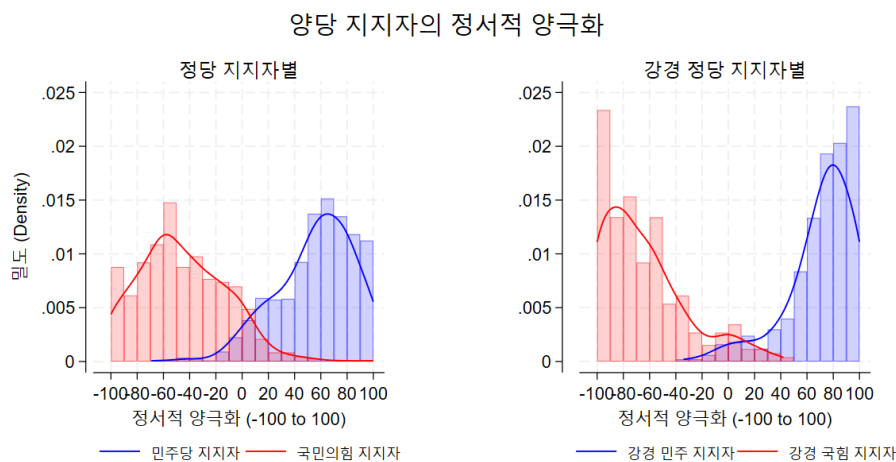
주: 숫자는 양당 지지자 평균 태도 간 차이를 의미함.

정책 이슈별로 주요 양당 지지자 간 태도 차이를 살펴봐도 양극화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그림 2]는 여덟 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양당 지지자의 평균 정책 태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동맹 강화'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보다 기업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두 문항을 제외하면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의 정책적 선호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그 격차 또한 크지 않다. 결국, 정책 이슈 영역에서도 한국 사회가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감정적인 호불호를 기반으로 하는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의 양상을 보인다고 본다. 정서적 양극화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in-group)과 상대 정당(out-group) 사이의 감정적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Iyengar et al. 2012). 정서적 양극화가 크다는 것은 유권자가 지지 정당에 대해서는 강한 호감을,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가져 두 감정 사이의 간극이 큰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정책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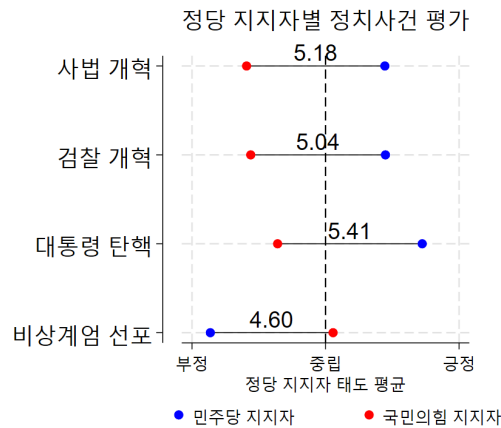
집단에 대한 감정적 호오의 문제로 파악하는 접근으로서, 최근 정치적 양극화 연구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Iyengar et al. 2012; McCoy et al. 2018)

정서적 양극화의 개념은 미국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는 크게 분열되지 않았음에도 상대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반감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한 데에서 출발하였다. 예를 들어, Iyengar, Sood, and Lelkes(2012)는 정당 호감도 온도를 통해 미국에서 지지 정당 호감도와 상대 정당 호감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보이고, 이러한 양극화가 이념이 아닌 정당 정체성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속 연구들은 정서적 양극화가 정치 영역을 넘어 채용, 결혼, 이웃 선택과 같은 비정치적 영역의 차별로까지 확장됨을 보여주었다(Iyengar and Westwood 2015; Iyengar et al. 2019).



[그림3] 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지자의 정서적 양극화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는 최근 한국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림 3]은 국가미래전략원이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정서적 양극화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정서적 양극화는 민주당 호감도에서 국민의힘 호감도를 차감한 값으로 산출하였고, 각 정당의 호감도는 0(대단히 싫어함)에서 100(대단히 좋아함)까지의 정수로 측정되었다. [그림3]의 왼쪽 그래프는 전체 양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오른쪽의 그래프는 두 정당을 매우 지지하는 강경 지지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양극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양당 지지자 간 정서적 거리는 쌍봉 분포를 나타내 이념과 이슈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양극화가 감정의 차원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른쪽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정서적 양극화는 강경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4] 민주당 및 국민의힘 지지자의 정치 이슈 평가 태도

그 결과, 정당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양당 지지자들의 태도 역시 뚜렷하게 갈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치 개혁 과제였던 사법개혁(격차 5.18)과 검찰개혁(5.04),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5.41) 및 비상계엄 선포(4.60)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의 의견이 명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정책 이슈에서는 양당 지지자 간 태도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가 이슈의 실질적 내용 자체보다는 정당 지지와 당파적 정체성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사회의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개인 유권자의 정당 지지의 강도에 주목한다.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정당 지지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할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실시한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당 지지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내적 정치 효능감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통해 매개되는지를 함께 분석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효능감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3장에서는 자료와 분석 방법을 소개하며,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가 갖는 함의를 논의한다.

2.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효능감

2.1. 정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는 흔히 이념적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와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구분된다. 양극화에 관한 초기 연구는 대부분 시민 사회의 좌-우 이념의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 사회의 이념 차이가 극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적대감이 깊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념적 양극화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Fiorina, Abrams, and Pope 2005). 이에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분열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상대 정당 사이의 감정적 거리가 멀어진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분열 중 하나로 보았다(Iyengar et al. 2019).

개념적으로, 정서적 양극화는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기초한다(Tajfel and Turner 1979).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집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을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면 정당에 대한 태도 역시 집단 정체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유권자의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 정치에 시민들이 하여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는 더욱 충성하고, 상대 정당에는 더욱 반감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 역시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와 정당 지지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Huddy, Mason, and Aarøe(2015)의 연구는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이 강할수록 정당의 승패와 같은 정치적 자극에 더욱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Mason(2015; 2018)은 정당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이 서로 정렬(sorting)될수록 상대 진영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적대감이 강화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서적 양극화는 단순한 정책적 이견의 산물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 정체성이 강하고 정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유권자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양극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내영

(2022)은 2022년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이 강해질수록 정서적 양극화의 정도가 커진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한국 정치에서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과거에 비해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 줄어들면서 거대 양당 중심으로 당파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이내영 2022). 김기동, 이재묵 (2022)의 연구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실시된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러한 효과는 연령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점을 보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당파적 정체성이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효과는 고령 및 386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기동, 이재묵 2022). 장승진, 서정규(2019)의 연구 역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으로 측정되는 정치적 정체성의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를 증대시킨다는 점을 보였다. 특히, 이들 연구는 정당일체감의 효과는 지지 정당에 대한 호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서적 양극화를 증대시킨다는 점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기존 연구는 당파적 정체성이 강할수록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정치적 적대감이 증폭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정당 지지 강도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강할수록 정서적 양극화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직접효과): 정당 지지 강도가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2.2 매개 경로: 내적 정치효능감

본 연구는 정당 지지와 정서적 양극화를 연결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내적 정치효능감(internal political efficacy)의 역할에 주목한다. 즉, 정당 지지 강도는 내적 정치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내적 정치효능감은 다시 정서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정치효능감이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Campbell, Gurin, and Miller 1954). 정치효능감은 크게 내적 정치효능감과 외적 정치효능감으로 구분되는데, 내적 정치효능감이란 흔히 자신이 정치 이슈와 과정을 잘 이해할 능력이 있으며, 정치 참여를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Converse 1972; Balch 1974; Craig, Niemi, and Silver 1990).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시민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수준이 높아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당 지지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연결 고리에 매개 변수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던 내적 정치효능감이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는 역설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내적 정치효능감이 매개변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 지지의 강도가 커질수록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첫 번째 경로가 성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정당을 보다 강하게 지지하는 유권자일수록 그 정당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하며,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고, 정치적 논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특정 정치적 관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은 실제 자신의 정치적 판단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정당 지지 강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정치를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 즉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높아진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서적 양극화를 높이는 두 번째 경로가 작동해야 한다. 최근 몇몇 연구들은 정치적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강화함으로써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특히 Fernbach et al.(2013)의 연구는 사람들이 복잡한 공공정책에 대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해의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이 정책 선호의 극단성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Stapleton and Wolak(2024)은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적 반대 의견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견해를 재검토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신뢰성이나 판단 능력을 의심하며, 정치적 반대자를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전문성에 도전하는 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시민은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상대 진영에 대해 보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저자들은 2020 Cooperative Election Study(CES) 데이터를 사용한 미국 유권자 분석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적 양극화 수준이 높고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 정치효능감이 단순히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민주적 자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확신과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내적 정치효능감은 정당 지지 강도와 정서적 양극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1: 정당 지지 강도가 높을수록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매개효과): 내적 정치효능감은 정당 지지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 데이터 및 방법론

3.1. 데이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본 설문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지역,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비례할당 추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8\%p$ 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정당 지지 강도와 정서적 양극화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내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화 구조방정식 모형 (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GSEM)을 사용하였다.

3.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서적 양극화는 감정 온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연구의 방식을 따라 민주당 호감도와 국민의힘 호감도 차이의 절댓값으로 측정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²⁾ 각 정당의 호감도는 “다음 정당과 정치인에 대하여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문항의 응답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정당 호감도는 0(대단히 싫어함)에서 100(대단히 좋아함)까지의 101점 척도의 정수로 측정되었으며 50점은 해당 정당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대단히 좋아하고, 민주당을 대단히 싫어하는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점수는 $|0-100|=100$ 점으로 측정된다. 반대로, 민주당을 대단히 좋아하고, 국민의힘을 대단히 싫어하는 경우에도 정서

2) 각 정당 지지자는 “선생님께서도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문항을 통해 판별하였다. 이 문항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그럼, 어느 정당에게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지하는 정당을 판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항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을 선택한 유권자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결과, 민주당 지지자 1,190명, 국민의힘 지지자 704명이 남아 총 1,894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적 양극화 점수는 $|100-0|=100$ 점으로 같다. 즉, 정서적 양극화 점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와 관계 없이 두 정당 간의 감정적 거리만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전체 응답자의 정서적 양극화 평균값은 54.09이며 민주당 지지자의 평균은 57.08, 국민의힘 지지자 평균은 49.05로 민주당 지지자의 정서적 양극화 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서적 양극화	54.09	27.74	0	100
정당 지지 강도	3.19	1.25	1	5
내적 정치효능감	3.32	0.64	1	5
외적 정치효능감	2.78	0.92	1	5
포퓰리즘 성향	3.06	0.67	1	5
정치기관 신뢰	4.49	1.85	0	10
이념 성향	4.98	2.23	0	10
국민의힘 지지	0.37	0.48	0	1
성별	0.48	0.50	0	1
세대	3.81	1.56	1	6
교육수준	1.86	0.61	1	3
월평균 가구소득	3.03	1.41	1	7
주관적 계층	2.38	0.66	1	3

[표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유권자가 각 정당을 지지하는 강도이다. 지지하는 정당의 강도는 “선생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지지하는) 정당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라는 응답에 대한 답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변수는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를 분석에서 제외한 후 ‘특별히 지지하지 않지만 다른 정당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를 1, ‘약간 지지한다’를 2, ‘대체로 지지한다’를 3, ‘많이 지지한다’를 4, ‘매우 많이 지지한다’를 5로 하는 5점 척도의 변수로 조작되었다. 정당 지지 강도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3.19이며 민주당 지지자의 정당 지지 강도 평균은 3.24, 국민의힘 지지자의 정당 지지 강도 평균은 3.09로 민주당 지지자의 민주당 지지 정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내적 정치효능감은 다음의 두 가지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답한 응답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다: 1) “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2) “대부분의 사람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두 진술에 대한 응답이 숫자가 커질수록 내적 정치효능감 또한 커지도록 1-5점까지의 척도로 재코딩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내적 정치효능감의 양당지지자 평균은 3.32, 민주당 지지자 평균 3.28점, 국민의힘 지지자 평균 3.37점으로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정치적, 그리고 지역적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 또한 모델에 포함되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응답자의 성별(여성=1, 남성=0), 세대(1=20대부터 6=70세 이상), 교육수준(1=고졸 이하부터 3=대학원 재학 및 졸업), 월평균 가구소득(1~7의 범주형 척도), 주관적 계층인식(1=상위계층부터 3=하위계층)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는 외적 정치효능감(1~5점), 포퓰리즘 성향(1~5점), 정치 기관 신뢰도(0~10점), 이념성향(0=매우 진보부터 10=매우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 여부(1=지지, 0=지지하지 않음)를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이념성향 평균은 4.98로 중도에 가까운 분포를 보였으며, 국민의힘 지지자는 전체 분석 대상의 37%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원제주 지역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1]에 제시되어 있다.

3.3 방법론

방법론으로 정당 지지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과 내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화 구조방정식 모형(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GSEM)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로 한정하였으며, 정당 지지 강도가 내적 정치효능감을 거쳐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정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 1,000회 반복 추출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4. 분석 결과

4.1. 강경 정당지지자

경험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한국의 '강경 정당 지지자'로 불리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2]는 주요 정당별 응답자의 정당 지지 강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강경 지지자들은 민주당, 국민의힘, 기타 정당에 많이 분포한다. 적극적 지지층('매우 많이 지지' 및 '많이 지지'의 합)의 비중은 민주당 42.1%, 국민의힘 37.1%로 거대 양당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소극적 지지층('특별히 지지하지는 않지만 다른 정당보다는 낫다')의 비중은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27.8%)과 진보당(25.0%)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당(사례수)	매우 많이 지지한다	많이 지지한다	대체로 지지한다	약간 지지한다	다른 정당보다는 낫다
더불어민주당(1,190명)	17.1%	25.0%	35.4%	9.3%	12.9%
국민의힘(704명)	16.5%	20.6%	33.8%	12.1%	16.3%
조국혁신당(99명)	9.1%	24.2%	43.4%	11.1%	12.1%
개혁신당(169명)	5.3%	16.6%	32.5%	17.8%	27.8%
진보당(28명)	7.1%	17.9%	46.4%	3.6%	25.0%
기타정당(49명)	20.4%	24.5%	26.5%	16.3%	12.2%

[표2] 각 정당 지지층의 정당 지지 정도 응답

[표3]은 주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강경 지지층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각 수치들은 두 정당 강경 지지층의 세대, 성별,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이념, 주관적 계급인식, 정치관심도, 정서적 양극화의 최빈값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두 강경지지층 집단은 대체로 그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유사하다. 두 집단의 강경지지층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고(민주당61%, 국민의힘54%),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층이 가장 많으며, 월평

균 가구소득은 200-400만원 수준이 가장 많고, 스스로를 주관적인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정치에 매우 관심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 강경지지층의 정서적 양극화 최빈값 또한 극단적인 값 100으로 동일하다. 두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세대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민주당 강경 지지자는 586세대인 50대가 중심인 반면 국민의힘 강경 지지자는 고령층인 70세 이상이 중심이다. 둘째, 주관적 이념 성향이 극단적으로 갈라진다. 민주당 강경지지층은 스스로의 이념을 2(매우 진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강경지지층은 10(매우 보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당	세대	성별	교육 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이념	주관적 계급 인식	정치 관심도	정서적 양극화
민주당 강경지지자	50대	남성 (61%)	대졸	200-400만원	2(진보)	하위층	매우 관심	100
국민의힘 강경지지자	70세 이상	남성 (54%)	대졸	200-400만원	10 (매우보수)	하위층	매우 관심	100

[표3] 민주당과 국민의힘 강경지지층의 특성

4.2. 분석 결과

[표4]는 GSEM 추정 결과 전체를 보여준다. 모델 1은 내적 정치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방정식으로 정당 지지 강도가 내적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모델 2는 정서적 양극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방정식으로 정당 지지 강도와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두 방정식은 동일한 정치적 태도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다. 먼저 정서적 양극화 모델(모델 1)에서 나타나듯이, 정당 지지 강도는 정서적 양극화와 가장 강한 연관을 보이는 변수로 확인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지지 강도가 한 단위 높아지면 정서적 양극화는 10.575점 높아지는 큰 효과를 나타낸다($p < 0.01$, 가설 1 지지). 내적 정치효능감 역시 정서적 양극화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내적 정치효능감이 한 단위 증가하면 정서적 양극화는 2.560점 높아진다($p < 0.01$). 즉, 정당 지지 강도와 내적 정치효능감이 모두 정서적 양극화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내적 정치효능감	(2) 정서적 양극화
정당 지지 강도	0.051*** (0.012)	10.575*** (0.455)
내적 정치효능감	—	2.560*** (0.897)
외적 정치효능감	0.104*** (0.016)	0.252 (0.630)
포퓰리즘 성향	-0.063*** (0.021)	0.792 (0.839)
정치기관 신뢰	-0.051*** (0.009)	-0.948*** (0.350)
이념 성향	-0.002 (0.008)	0.540* (0.304)
국민의힘 지지	0.053 (0.040)	-9.915*** (1.569)
성별	-0.197*** (0.028)	2.277** (1.118)
세대	0.008 (0.010)	1.088*** (0.375)
교육: 대학 재학·졸업	0.160*** (0.035)	-0.689 (1.372)
교육: 대학원 재학·졸업	0.171*** (0.051)	-0.696 (1.998)
월평균 가구소득	0.018 (0.011)	0.656 (0.430)
주관적 계층: 중위층	-0.068 (0.051)	1.400 (1.971)
주관적 계층: 하위층	-0.106** (0.053)	2.667 (2.056)
거주 지역 더미	포함	포함
상수	3.219*** (0.150)	0.656 (6.526)
N	1,886	1,886

[표4] GSEM 추정 결과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1, **p<0.05, ***p<0.01. 교육수준의 기준 범주는 고졸 이하, 주관적 계층의 기준 범주는 상위층. 거주 지역은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더미를 포함.

나아가, 내적 정치효능감 모델(모델 1)을 보면, 정당 지지 강도는 내적 정치효능감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0.051, $p < 0.01$). 이는 지지 강도의 효과 일부가 효능감을 경유하는 매개 경로의 존재를 시사한다. 다만 간접효과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은 두 경로계수의 곱에 대한 별도의 검정을 요구하므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해를 실시하였다.

구분	계수	Bootstrap 표준오차	z	95% CI
직접효과: 지지 강도 → 정서적 양극화	10.575***	0.480	22.02	[9.652, 11.577]
간접효과: 지지 강도 → 내적 효능감 → 정서적 양극화	0.131**	0.061	2.16	[0.040, 0.284]
총효과	10.707***	0.479	22.34	[9.765, 1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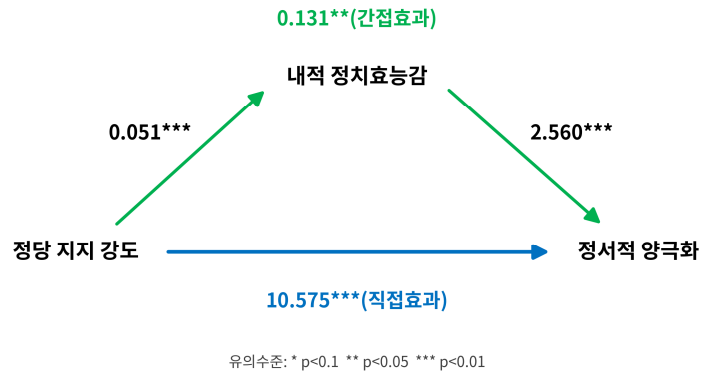
[표5] 부트스트랩 추정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

주: 부트스트래핑 1,000회 반복 추출. BC는 편향 조정(bias-corrected) 신뢰구간. * $p < 0.1$, ** $p < 0.05$, *** $p < 0.01$. N=1,886.

[표5]는 부트스트래핑 1,000회 반복 추출로 계산한, 정당 지지 강도에서 내적 효능감을 매개로 정서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직접, 간접, 총효과의 분해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 매개 경로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 강도가 내적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와 내적 정치효능감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효과의 곱으로 계산되는 간접효과는 0.131($p < 0.05$)이며, 편향이 조정된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은 [0.040, 0.28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다(가설 2 지지). 한편 효능감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효과는 10.575($p < 0.01$)로 여전히 크고 유의하며,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인 10.707($p < 0.01$)이다. 즉, 정당 지지 강도가 한 단위 높아질 때 정서적 양극화는 직접 및 간접 경로를 모두 포함하여 총 10.7점가량 높아진다. [그림5]는 이러한 매개효과 분해 결과를 경로 도식으로 요약한 것이다.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더라도 그 실질적 크기의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간접효과(0.131)는 총효과(10.707)의 약 1.2%에 불과하다. 즉, 내적 정치효능감을 경유하는 매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지지 강도 효과의 극히 일부만을 설명한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 지지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를 높이는 효과의 대부분은 효능감으로 환원되지 않는 직접 경로를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총효과의 실질적 크기는 상당하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당 지지가 가장 약한 응답자와 가장 강한 응답자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 점수 차이는 약 42.8점에 이른다. 0-100 척도의 종속변수에서 이는 매우 큰 격차로, 정당 지지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그림5] 매개효과 분해 경로 계수

이에 더해, 몇 가지 흥미로운 독립변수의 효과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힘 지지자는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 수치가 9.91점 낮은 경향을 보였다 ($p < 0.01$). 이에 대한 해석은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설문조사가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경험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 자당에 대한 실망으로 호감도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데이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704명의 국민의힘 호감도 점수 평균은 63.28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1,190명의 민주당 호감도 점수 평균은 70점으로 국민의힘 지지자의 지지 정당 호감도가 훨씬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포퓰리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이념 효과 역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서구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기성 정치 엘리트와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커져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며, 이념적 극단성 또한 정서적 양극화의 주요 예측 변수임을 보인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이는 한국의 정치 갈등이 정책적, 이념적 내용보다 진영 간 적대에 기반해 있음을 시사한다. 유권자가 스스로를 얼마나 진보적 혹은 보수적으로 인식하는지보다, 어느 정당에 얼마나 강하게 애착을 갖는지가 상대 진영에 대한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이념의 양극화가 아니라

당파적 애착의 양극화인 것이다.

셋째, 남성보다는 여성이, 세대가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 점수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의 정서적 양극화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최근 한국 정치에서 젠더 이슈가 당파적 균열과 중첩되면서 여성 유권자의 정당 태도가 정체성 차원에서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 효과가 특정 세대의 여성에게 집중된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세대 효과의 경우, 당파적 정체성을 오랜 기간 경험해 온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각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보다 강하게 느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는 낮게 나타났다. 정치제도가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리라는 믿음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상대 진영을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역으로,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정서적 양극화 완화의 제도적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실시한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 실현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정당 지지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이 수행하는 역할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분열은 이념이나 정책 선호의 차이보다는 정당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적대감에 기반한 정서적 양극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분포와 대부분의 정책 이슈에서 양당 지지자 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감정의 차원에서는 뚜렷한 균열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강경 지지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경험적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당 지지 강도는 정서적 양극화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지지 강도가 가장 약한 집단과 가장 강한 집단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 점수 차이는 0-100 척도에서 약 43점에 달하였다. 반면 이념 성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유권자가 스스로를 얼마나 진보적 혹은 보수적으로 인식하는지보다 어느 정당에 얼마나 강하게 애착을 갖는지가 상대 진영에 대한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이념의 양극화라기보다 당파적 애착의 양극화라는 본 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내적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 또한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정당 지지 강도가 강할수록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효능감은 다시 정서적 양극화를 증가시켰다. 다만 이 간접효과는 총효과의 약 1% 수준에 불과하여, 정당 지지 강도의 효과 대부분은 효능감으로 환원되지 않는 직접 경로를 통해 작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한국 사회의 정서적 양극화는 강한 당파적 정체성과 집단 귀속감 그 자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민주주의의 자원으로 이해되어 온 내적 정치효능감이 오히려 양극화를 강화하는 경로로 작동할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확신이 높아질수록 상대 진영의 견해를 정당한 의견 차이가 아닌 잘못된 판단이나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밝힌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시

점의 횡단면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정당 지지 강도, 내적 정치효능감, 정서적 양극화 사이의 인과적 방향을 확정하기 어렵다. 정서적 양극화가 역으로 정당 지지 강도를 강화하는 상호강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패널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조사는 비상계엄과 탄핵 직후라는 예외적인 정치적 국면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평상시의 한국 정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이념이 아닌 당파적 애착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이고, 내적 정치효능감이라는 심리적 기제의 역설적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양극화 연구에 기여한다.

참고문헌

- 김기동, 이재묵. 2022. 「당파적 정체성, 연령,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 『정치정보연구』 25(2): 21-50.
- 이내영. 2022.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주요 원인과 비정치적 효과」. 『아세아연구』 65(4): 5-36.
- 장승진, 서정규. 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 정당학회보』 18(3): 5-29.
- Balch, George I. "Multiple Indicators in Survey Research: The Concept 'Sense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Methodology*, vol. 1, no. 2, 1974, pp. 1-43.
- Campbell, Angus, Gerald Gurin, and Warren E. Miller. *The Voter Decides*. Row, Peterson, 1954.
- Converse, Philip E. "Change in the American Electorate."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edited by Angus Campbell and Philip E. Converse, Russell Sage Foundation, 1972, pp. 263-337.
- Craig, Stephen C., Richard G. Niemi, and Glenn E. Silver.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vol. 12, no. 3, 1990, pp. 289-314.
- Fernbach, Philip M., Todd Rogers, Craig R. Fox, and Steven A. Sloman. "Political Extremism Is Supported by an Illusion of Understanding." *Psychological Science*, vol. 24, no. 6, 2013, pp. 939-946.
-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Pearson Longman, 2005.
- Huddy, Leonie, Lilliana Mason, and Lene Aarøe. "Expressive Partisanship: Campaign Involvement, Political Emotion, and Partisan Ident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9, no. 1, 2015, pp. 1-17.
- Iyengar, Shanto, Gaurav Sood, and Yphtach Lelkes.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6, no. 3, 2012, pp. 405-431.
- Iyengar, Shanto, Yphtach Lelkes, Matthew Levendusky, Neil Malhotra, and Sean J. Westwood.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22, 2019, pp. 129-146.
- Iyengar, Shanto, and Sean J. Westwood. "Fear and Loathing across Party Lines: New Evidence on Group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9, no. 3, 2015, pp. 690-707.
- Mason, Lilliana.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9, no. 1, 2015, pp. 128-145.
- Mason, Lilliana. *Uncivil Agreement: How Politics Became Our Identity*. U of Chicago P, 2018.
- McCoy, Jennifer, Tahmina Rahman, and Murat Somer. "Polarization and the Global Crisis of Democracy: Common Patterns, Dynamics, and Pernicious Consequences for Democratic Poli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62, no. 1, 2018, pp. 16-42.
- Stapleton, Carey E., and Jennifer Wolak. "Political Self-Confidence and Affective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88, no. 1, 2024, pp. 79-96.
- Tajfel, Henri, and John C. Turner.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Brooks/Cole, 1979, pp. 33-47.



IFS 페이퍼 2026-01 (Vol.5)

한국 사회의 정서적 양극화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저자	정연경(goodjob3@snu.ac.kr)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전화	02-880-2893
팩스	02-882-2894
홈페이지	ifs.snu.ac.kr

이 연구내용은 연구자 개인의견이며 국가미래전략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ISSN 3058-5848

